

# 『보통학교수신서』에 등장한 아동명의 변화를 통한 창씨개명 고찰\*

김순전\*\*·박제홍\*\*\*

## 目次

1. 들어가기
2. 일제의 창씨개명정책
3. 수신서에 나타난 어린이 이름 변화 양상
  - 3-1. 창씨개명을 통한 내선일체
  - 3-2. 복동(福童)·수동(壽童)에서 정남(貞男)·수남(壽男)으로
  - 3-3. 인영(仁榮)·정희(貞姬)에서 정길(正吉)·영자(英子)로
  - 3-4.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의 차별적 묘사
4. 창씨개명의 이중성
5. 마무리

## 1. 들어가기

한국인은 자신의 주장이 결백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조할 때 보통 '성을 간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나 외부의 변화 즉 결혼이나 양자 입적으로도 바뀌질 수 없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실시했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제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43)

\*\*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연구원 센터 소장

\*\*\* 전남대 강사

본 텍스트의 기본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복판된 저본으로 하였으며,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국정교과서로 1913년 <Ⅰ期『普通學校修身書』(卷1~4)>, 1922년 <Ⅱ期『普通學校修身書』(卷~6)>, 1928년 <Ⅲ期『普通學校修身書』(卷1~6)>, 1938년 <Ⅳ期『初等修身』(卷1~6)>, 1942년 발행한 <Ⅴ期『ヨイコトモ』(1학년~2학년), 『初等修身』(제3학년~6학년)>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 교과서 출판을 5기로 나눈 것은 조선총독부 편수과에 근무한 오쓰키 요시히로(大槻芳廣)의 '교과서 편찬사업의 변천' 「문교의 조선」(1944년 3월호, p.29~35)에 있다. 따라서 표기방법은 <(기수)-(권수=학년)-(과수)>의 순서로 하였다. 3기 2학년 1과를 조선총독부 발행 보통학교수신서는 <KⅢ-(2)-1>, 일본문부성 발행 심상소학수신서는 <JⅢ-(2)-1>로 표기한다

던 창씨개명정책은 조선인의 전통적인 성과 이름을 하루아침에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였다.

당시 창씨개명에 대해서 조선총독부는 “반도 통치사의 한 시대를 갖는 중요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상고시대에 천황이 일본으로 건너온 귀화인에게 일시동인의 은혜를 베풀어 씨를 주신 결과, 현재까지도 그들은 완전히 아마토(大和) 민족으로 융합했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이런 예와 같이 조선인에게 아마토 민족의 큰 은혜를 베풀고자 창씨제도를 시행하여 아마토 민족으로 포함시킨다.”<sup>1)</sup>라는 취지의 독선적인 논리로 창씨개명을 선전하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조선인은 창씨개명으로 조선의 말과 글 그리고 고유한 이름까지 빼앗겼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외형적으로 조선식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지는 것만 아니고, 조선의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틀을 해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1936년 10월 이태준은 소설 「장마」에서 창씨개명의 음모를 사전에 예시하는 듯한 글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러다가 몇 해 후에는 이가니 김가니 박가니 정가니 무슨 가나가 모두 어수선스럽다고 시민의 성명까지도 무슨 방법으로든지 통제할런지도 모른다.”<sup>2)</sup>

이와 같이 당시의 지식인들 중에게 창씨개명정책을 사전에 간파한 이가 있다는 것은 창씨개명정책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일본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창씨개명의 정당성에 대해 조선인들의 약 80%가 자발적으로 했으며 대만도 똑같이 실시했다고 강변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창씨개명 정책에 대한 연구와 의도성 그리고 구체적인 창씨개명 사례위주가 대부분이었었다.<sup>4)</sup> 본 연구에서는 1912년부터 패전 까지 사용한 조선

1) 若槻泰雄(1989), 「韓國・朝鮮と日本人」, 原書房 p.39.

2) 이태준 著(1988), 「李泰俊文學全集」, 瑞音出版社 p.62.

3) 대만에서는 ‘改姓名’이라 한다. 실시한 날은 1940년 2월 11일 紀元節로 조선의 창씨개명과 똑 같은 날에 시행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신칭기간이 6개월 인데 반해 대만에서는 2년이었고 허가 조건이 까다로웠다. 일반적으로 일본어 상용가정으로서 皇國民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전과 없는 가정 2. 집에 가미다나(神棚)를 모시고 아침저녁으로 기도를 올리는 가정 3. 다다미 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 4. 황민화에 협력적인 가정 등이다. 양태호·정운혁 편역(1994), 「창씨개명의 사상적 배경」, 『창씨개명』, 학민사, p.144.

4) 창씨개명에 관한 학위 논문은 홍일표의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창씨개명 정책으로」(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와 장미화의 「일제말기 황민화정책과 창씨개명」(1998,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김용욱의 『일제에 의한 가족법제의 왜곡과 청산』 제2장 4절 ‘제차 침략에서 창씨개명의 사례와 창씨개명이 전통가족법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고 있다. 단행본으로는 미야다 세츠코(宮田節子)·金永達·梁泰昊의 공동저자인 『創氏改名』(1992, 明石書店)은 전반적인 창씨개명의

총독부 발행 『보통학교수신서』에서 나오는 아동들의 이름 변화를 통해, 언제, 어떻게 조선식 어린이의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가를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과 관련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일제의 창씨개명정책

1936년 8월 5일 조선총독에 취임한 육군대장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7년 중일전쟁의 전개에 따른 보다 강력한 전쟁체제 구축을 위하여 ‘내선일체’를 제창했다. ‘내선일체’는 조선인을 보다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탄생되었다. 미나미는 1939년 5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임원총회 석상에서 내선일체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서로 손을 잡았지만 융합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손을 잡는 자는 손을 놓으면 또한 갈라진다. 물과 기름도 무리하게 흔들어 섞으면 융합된 형태가 되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 모양도 마음도 피도 살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sup>5)</sup>

특히 그는 조선과 일본의 혈연관계까지를 생각한 강력한 황국신민화정책을 표방하였고 조선인을 완전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3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1938년 2월에 공포된 <육군특별지원병령><sup>6)</sup>,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sup>7)</sup> 그리고 1940년 2월부터 실시된 <창씨개명> 정책이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대표적인 관변단체의 하나인 녹기연구소는 창씨개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다.

---

역사와 사례중심으로 연구되었다. 金永達의 『創氏改名研究』(1997, 未來社)는 당시의 신문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을 검증함으로 창씨개명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 『創氏改名의 法制度와 歷史』(2002, 明石書店)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호사카 유우지(保坂祐二)의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3장 3절 ‘창씨개명을 통한 민족동화정책에서 창씨개명 정책의 역사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창씨개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인과 제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5) 君島和彦·최원규엮음(1988), 『조선에 있어서 전쟁 동원체제의 전개과정』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p.165.

6)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되자 조선인의 병력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1938년 2월 22일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했다. 1938년 지원자 2946명, 입소자 406명, 1939년 지원자 12538명, 입소자 612명, 1940년 지원자 84443명, 입소자 3060명. 宮田節子(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교육』 미래사, pp.50~93 참조

7) 1938년 3월 ‘국체명칭’ ‘내선일체’ ‘인고단련’ 등의 슬로건을 내건 황국신민화 교육을 목표로 한 3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의 명칭 통일과 필수과목인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한 것 등이다. 이혜영(1997),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Ⅱ』, 한국교육개발원, p.221 참조

“조선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중국을 모방했다. 지금까지의 조선인의 성명은 대부분 중국식으로 이번에 일본식으로 씨명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예부터 전해온 중국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며 조선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제1의 길이다.”<sup>8)</sup>

이와 같은 창씨개명정책은 중일전쟁에서 조선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실시되었다.

일제가 합방 이후부터 창씨개명을 실시하기까지 법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진했는가를 살펴보면, 1912년 3월 18일 공포된 제령 제7호의 ‘조선민사령’에서 능력(법률행위를 하는 법적자격),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일본 민법을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하므로 조선사회 고유한 가족제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일 시행한 제1차 개정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일본민법을 본 따 일본인의 재산상 거래를 원활하게하고, 일본인의 조선인 재산 수탈을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었다. 제2차 개정은 1923년 7월 1일 시행한 것으로 신분행위 방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일본 방식으로 통일시키고 호적에 관한 규정을 설치한 조선호적령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혼인, 이혼, 양자결연, 이연(離緣) 등의 수속을 우선 조선에 도입시킨 것이다 제3차 개정은 1940년 2월 11일 시행된 것으로 씨 제도를 도입하여 일본식 이에(家)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데릴사위나 이성 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조선의 고유한 이성불양(異姓不養) 원칙을 무너뜨렸다. 이는 부자간 혈통의 순수성을 핵으로 한 조선의 종족제도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실시되었던 민사령 개정이 마침내 1939년 11월 10일 기본 법령으로서 제령 제19호 <조선 민사령 중 개정 건><sup>10)</sup>과 제령 20호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sup>11)</sup>이 공포되었고 12월 26일 <조선총독부령 제 29호>로 이 두개 제령의 시행일이 1940년 2월 11일 기원절로 결정되었다.<sup>12)</sup>

우리가 창씨개명을 논할 때 무엇이 창씨이고 개명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대부분의 일반인은 창씨를 하면 개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성을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창씨가 법적으로 기한을 두고 바뀌는 반면, 개명은 본인의 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함으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일반인이 개명한 예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명이라 할 때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개명을 유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8) 녹기일본문화연구소(1940) 「씨 창설의 사회성과 그 이상 정신」

9) 혼인이나 양자로 자신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들어 갈 때, 새로 들어 갈 사람은 자신의 성을 버리고 들어갈 성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10) 조선민사령 제 11조에 일본민법의 「씨」의 규정이 새로 편입하여 적용되어 호적에 씨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이것을 ‘창씨’라고 한다. 金英達(1996), 『創氏改名の研究』, 未來社, p.104 참조

11) 새롭게 ‘씨명의 변경’ 제도가 설치되어 조선풍의 호칭에서 일본풍의 호칭이 개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개명’이라 한다. 앞의 책, p.104 참조

12) 金英達·정운혁 편역(1994), 「창씨개명의 제도」, 『창씨개명』, 학민사, pp.50 ~7.

한일합방 당시 일반인이 개명하는데 1인당 50전의 수수료가 들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0년 4월 5일 <조선총독부령 제90호>를 개정하여 1가구당 50전으로 변경하여 개명을 유도하였다.<sup>13)</sup> 이와 같이 일제는 창씨에 이어 일본식으로 개명하도록 수수료를 낮추는 등 편리를 도모했으나 생각한 만큼 개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겨우 10% 미만이었다.<sup>14)</sup> 당시 조선인의 창씨개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氏설정계를 내지 않는다. 즉 개씨와 개명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창씨개명에 반대하여 본인이 일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 법정창씨<sup>15)</sup>가 되어 호주의 성이 그대로 씨가 되는 경우로 氏와 名은 조선식 그대로이다. 다만 호주와 성이 다른 처의 경우 성이 호주(남편)성과 같아진다.<sup>16)</sup>
- (2) 氏설정계를 냈으나 개명은 하지 않는다. 씨만 일본식으로 되었을 뿐 이름은 그대로인 경우이다.<sup>17)</sup>
- (3) 氏설정계를 내지 않았으나 나중에 개씨를 했다. 하지만 개명은 하지 않은 경우이다.
- (4) 氏설정계를 내고 개명도 한 경우이다.<sup>18)</sup>
- (5) 氏설정계를 내지 않았으나 나중에 개씨와 개명을 한 경우이다.<sup>19)</sup>
- (5) 이 같은 타입 중 하나를 일제 말기 조선인 호주가 선택해야하는 경우였다.

### 3. 수신서에 나타난 어린이 이름 변화 양상

#### 3-1. 창씨개명을 통한 내선일체

수신서에는 어린이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거나 창씨개명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씨명(성과 이름)을 바꿨다’라는 표현으로 창씨개명의 정

13) 宮田節子·정운혁 편역(1994), 「창씨개명의 실시과정」, 『창씨개명』, 학민사, pp.94~5.

14)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 수 및 비율 (일본식 개명률)

씨 설정 기간 내(1940년 2월 11일 ~ 8월 11일)	1,201,764명
씨 설정 기간 후(1940년 8월 11일 이후)	1,109,599명
계	2,311,363명
총인구	24,053,530명(9.6%),

金永達저(1997), 『創氏改名の研究』, 未來社, p.73.

15) 1942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 까지 6개월 기간 안에 창씨 제출서를 내지 않은 집은 제령 제9 호 부칙 제3항에 의해서, 호주의 성을 씨로 저절로 바뀌어지게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설정이라 한다

16) 예 : 이규철(호주), 이채봉(어머니, 유채봉), 이춘재(처, 박춘재)로 바뀌짐

17) 예 : 오야마大山東鎮(姜東鎮)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이 같은 타입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된다.

18) 예 :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이광수

19) 주8)과 같은 책, pp.68-9참조.

당성을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KIV-(4)-11> 「우리 고장」에는 조선의 성과 이름에서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창씨개명 한 기야마 하루키치(木山春吉)를 등장시켜 조선인의 모범적인 청년으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쇼와리(昭和里)는 지금은 평화롭고 좋은 부락이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몹시 황폐하고 인정이 부족한 부락이었습니다. (중략) 하라 타로(原太郎) 청년은 “옛날식 농사법에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는 노인을 비웃거나,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청년을 보고 보지 않은 채 하는 것만으로는 조선을 위해서도 고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 거기에서 즐거움도 솟아나고 부락도 이름답게 된다. 사는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고장이 잘 되는 것이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한번 도시에 나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氏名(성과 이름)을 바꾼 기야마 하루키치(木山春吉)는 “도시도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다. 도시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조상 대대로 고향을 버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무리 황폐되어 있어도 이 지역은 조상 대대로의 고향이다. 불품이 없어도 이 집은 조상 대대로의 사람이 사는 거처이다. 게다가 내지(일본) 사람과 서로 친하고 서로 도와주어 가장 훌륭한 고장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업에 힘쓰고, 부락을 위해서 수고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침내 부락 전체가 밝아지고 희망이 넘친 생활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중략) 집 안팎은 깨끗하게 되고 여자까지도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축제일에는 모든 집에 도 국기를 달게끔 되었습니다. <KIV-(4)-11> 「우리 고장」<sup>20)</sup>

이와 같이 창씨개명한 조선 청년과 일본 청년을 동시에 등장시킨 것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단결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고장은 아니지만 조선의 농촌개량에 힘을 쏟고 있는 모범적인 일본 청년을 교훈 삼아, 조선인도 이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청년이 오기 전에는 마을이 몹시 황폐되었고 인정이 없었으나 일본인과 서로 사이좋게 형제처럼 지냄으로서 마을전체가 국기를 다는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것을 모범사례로 나타내고 있다.

이름뿐만 아니라 지명에서도 일본식으로 바꾼 사례로 쇼와리는 당시 昭和천황의 연호와 똑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쇼와리에 사는 기야마 하루키치는 황국신민의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청년이며 이상적인 마을이라는 것을 아동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 3-2. 복동(福童)·수동(壽童)에서 정남(貞男)·수남(壽男)으로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 수신서』에 나오는 어린이 이름을 관찰하기에 앞서 『학부 편찬

20) <KIV-(4)-11> 「우리 고장」의 번역은 필자의 줄역으로, 원본의 인용은 분량상 생략한다.

보통학교수신서』<sup>21)</sup>를 살펴보면 福童, 壽童, 貞童, 玉童<sup>22)</sup>, 順明 등 모두 남자 어린이 이름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전체적인 형태는 『일본 심상소학수신서』<sup>23)</sup>를 모방했으나 등장하는 아동의 이름은 아직도 조선 아동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sup>24)</sup> 이것은 짧은 기간에 교과서를 편찬한 점과 당시 조선인의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과 반발심도 고려하여 학부 편찬에서는 조선 어린이 이름을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1> 『보통학교 수신서』의 각 기수별 어린이 이름 등장 도표

기수 이름	학부 (1909~12)	I기 (1913~21)	II기 (1922~29)	III기 (1930~37)	IV기 (1938~41)	V기 (1942~45)	총수 (명)
복동	福童(2)	福童(2)	福童フクドウ(1)				5
옥동	玉童(1)		玉童(2)				3
수동	壽童(2)						2
정동	貞童(2)	貞童(2)					4
순명	順明(1)						1
수남		壽男ジュナン(1)	壽男(1)				2
정남			貞男(4)				4
인영			仁榮ジンエイ(2)	仁榮ジンエイ(2)			4
정희(여)			貞姬テイキ(4)				4
순희(여)			順姬ジュンキ(1)				1
숙희(여)			淑姬シュクキ(2)				2
정희(여)			正姬テイキ(1)				1
대식				大植タイショク(7)			7
문식				文植ブンショク(2)			2
인식				仁植ジンショク(2)			2
창식				昌植ショウショク(2)			2
창대				昌大ショウ다이(1)			1
성기				成基セイ키(3)			3
홍규				弘圭コウケイ(2)			2
홍부				興夫コウフ(1)			1
순태				順泰ジュン타이(3)			3
옥순(여)				玉順ギョクジュン(5)			5
영자(여)				英子エイシ(3)	英子エイシ(4)		7

- 21) 통감부시대에 학부에서 편찬한 수신서로 학부의 일본인 미쓰지 츄쵸(三土忠造)의 주도아래 출판되었다. 「학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는 1908년 4권으로 출판되었고 한글로 쓰여 있다
- 22) 雙童(쌍둥이), 先童(선둥이), 막둥이, 늦둥이 등. 남영신(1989), 『우리말 분류사전 이름편』 4 p.433 참조
- 23) 일본 문부성이 폐전 전까지 5기에 걸쳐 편찬한 국정교과서이다. I기는 1904년, II기는 1910년, III기는 1918년, IV기는 1934년, V기는 1941년이다
- 24) 1907년 발행 검정교과서인 『최신초등소학』 권 2와 권 3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花童, 柳葉童, 三童, 甲童, 乙童 이외에 黃金萬, 白玉千, 菊香이 등장한다. 1910년 발행 『학부 편찬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권 2와 권 3에 나오는 어린이 이름은 福童, 壽童, 貞童, 玉童, 順明 등으로 『학부 편찬 보통학교 수신서』와 똑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다.

정자(여)				貞子テイシ(1)	貞子テイシ(5)		6
정길					正吉ショウキチ(16)		16
준길					俊吉シュンキチ(2)		2
수길					秀吉シウキチ(1)		1
광국					光國 コウコク(2)		2
정홍					正弘 セイコウ(2)		3
명자(여)					明子 メイシ(2)		2
다로		太郎(1)			太郎 タロウ(1)		2
다케코(여)					タケ子(1)		1
오츠나(여)					おつな(1)		1
이사무						勇イサム(7)	7
히로시						宏ヒロシ(3)	3
가나야						金谷かなや(1)	1
마사오						正男まさお(2)	2
다케오						武男たけお(1)	1
지로						次郎じろう(1)	1
고지로						小次郎(1)	1
스스무						進すすむ(1)	1
하나코(여)						ハナコ(1)	1
후미코(여)						フミ子(1)	1
남(31명)	5	4	5	10	6	8	90
여(12명)			4	3	5	2	32
총(43명)	5	4	9	13	11	10	122

I 기(1913~1921)는 福童과 貞童이만 나오고 壽童이가 壽男으로 바뀌져 세 사람 밖에 나오지 않는다. 「학부」에 이어 I 기에서도 여자 어린이 이름은 한번도 나오지 않은 반면 일본 남자 어린이 이름인 다로(太郎)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학부」 때 보다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났으나 오히려 조선인 어린이 이름과 수는 줄어졌다. 그렇다면 수동에서 수남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일제의 고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한일합방 당시의 초대 총독인 테라우치(寺内)는 조선통치의 정당성과 동화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일선동조론’<sup>25)</sup>을 주장하였다. 수신서에서 ‘일선동조론’을 지탱해 줄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수남이었다. 일본에서는 다케오<sup>26)</sup>로 조선에서는 수남으로 부르고 양국이 공통으로 존재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수신서에서 수남을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의 중간자적이고 경계의 이름을 등장시켜 보급시켰다. 조선과 일본이 원래 같은 뿌리라는 인식을 어린이에게 심어줌으로서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일본 민족과 일체성을 강

25) 조선과 일본의 조상이 같다는 주장으로 일본의 조선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동화정책의 근거를 주기 위한 이론으로 기능했다. 일본 민족의 혈통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할 필연성을 역설한 가족 국가관의 틀 안에 조선을 넣으려는 논리이다. 松原正毅(1995), 『世界民族問題事典』, 平凡社, p.851.

26) 大高利夫(1990), 『日本姓名よみふり辞典名の部』, 紀伊國屋書店, p.759.

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I기 수신서에는 어린이의 이름 하나에도 일제 식민지 동화정책의 전략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 일제가 겉으로는 일선동조론을 주장하지만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없애고자 동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수신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시켰다.

II기(1922~1929)는 어린이 이름이 9명(福童, 玉童, 壽男, 貞男, 仁榮, 貞姬, 順姬, 淑姬, 正姬)으로 늘어나고, I기에는 한 명도 없던 여자 어린이가 4명 나오고 있다. 특징은 조선 어린이 이름인 福童에 ‘후쿠도’로 요미가타를 붙였다. 또한 I기의 수남에 이어 새롭게 貞男(사다오)과 仁榮(진에이)이 등장하고 있다. 조선의 남자 어린이 이름은 福童과 玉童 둘뿐이고, 오히려 일본과 조선에 동시에 존재한 壽男, 貞男, 仁榮 세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I기보다 어린이 이름수는 늘어난 반면 조선 어린이 이름이 적게 나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여자 어린이 이름인 貞姬, 順姬, 淑姬, 正姬가 처음으로 많이 등장한다.<sup>28)</sup> 이것은 3·1운동 당시의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의 약 50%가 20·30대라는 점을 의식해서 조선의 남자 어린이 이름이 축소되었고 대신 여자 이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학교수신서』 1학년 18과에서 23과<sup>29)</sup>까지는 한글과 일어를 병기하였다. 이런 예는 강점기 이후 패전까지 한번도 없는 경우이다.

### 3-3. 인영(仁榮)·정희(貞姬)에서 정길(正吉)·영자(英子)로

III기(1930~1937)는 국내적으로 1926년의 학생 시위와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을 정점으로 한 반일운동과 국외적으로 세계경제공황 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남자 어린이의 역할이 강조되어 남자 어린이가 8명이 등장한다. 이에 반해 여자 어린이는 3명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남자 어린이 이름에서는 일본식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여자 어린이 이름에서는 英子, 貞子, 明子와 같이 일본식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다.<sup>30)</sup> 또한 남자 이름에 植이 붙은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 일제가 농촌진

27) 유명인들의 이름에서도 일본인은 明治天皇 외 14명이 등장하나 조선 사람은 여동현의 처 <KI-(1)-18~23>, 강호선 <KI-(3)-13>, 정민혁 <KI-(4)-13> 세 사람 밖에 나오지 않는다.

28) 周나라의 皇姓이 姬였기 때문에 모두 희라는 성으로 출가하는 것을 보고 모화사상에 빠져 우리나라 양반층에서 딸에 이름에 姬자를 쓰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김종중(2000), 『옛말로 풀어 읽는 우리 이름, 우리문화』, p.58.

29) コノコハヒロッタエンピツヲカエシテヤリマシタ。  
이 옹희는 길에서 어든 연필을 남자 를 차져주었소. <KII-(1)-18> 「ジブンノモノトヒトノモノ」

30)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전형이 英子, 貞子식으로 여자 이름의 끝에 붙는 ‘子’였다. 사대부집 여자 이름에는 姬, 卿, 玉, 珠등이 보통 쓰였고 상인계급에서는 간난이 입분이, 언넌이, 아지(아기) 등으로 보통명사처럼 붙여왔던 여자 이름들이 하루아침에 春子, 花子 등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또 남자 이름으로는 郎, 雄, 植, 一 등이 많이 쓰였다. 배우리(2005), 『우리 이

흥운동을 고취시키기 위해 ‘심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II기의 壽男, 貞男과 III기의 仁榮이는 일본인으로 동화된 조선 어린이로서 항상 일본 어린이와 함께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일본 어린이 다로(太郎)와 함께 나오는 조선 어린이 이름은 오직 수남과 인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 어린이와 사이좋게 지낼 것을 <KIII-(1)-6>의 「사이좋은 친구」 교사용에서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어린이가 하나의 짐을 들고 갑니다. 어느 날 인영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평상시대로 그 날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서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친구 집에 놀러가려고 길을 나서자, 친구인 다로(太郎)가 커다란 보따리를 옆에 두고 길옆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영은 가볍게 인사하고 그 곁에 다가가서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로는 “큰아버지 집에 이 보따리를 갖다 주러 가는 중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인영은 그것을 듣고 “이 보따리는 무겁게 보이니 함께 들고 가자. 잠깐만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영은 보따리를 그 막대기에 끼고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로는 기뻐서 인영이 말하는 대로 하고 도중에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둘이서 즐겁게 들고 갔습니다. <KIII-(1)-6> 「사이좋은 친구」(교사용)



그림1 <KIII-(1)-6> 「사이좋은 친구」(교사용)

다음 아래 그림을 보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공치기를 하며 놀고 있는 어린이는 오하나(お花), 오유키(お雪), 貞子, 英子 등입니다. 저쪽에는 그네를 타고서 놀고 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오하나, 오유키, 貞子, 英子 등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서로 왕래하고 책을 보고나 놀거나 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매우 재미있게 보입니다. 만약에 오하나나 貞子 중에 누군가가 병이라도 걸리면 그림책을 빌려주거나 병문안을 가거나 하면서 서로 위로합니다. <KIII-(1)-6> 「사이좋은 친구」(교사용)<sup>31)</sup>

름에 남은 일제 잔재, 『한 권으로 보는 일제 잔재 19가지』, 가람기획, pp.87~8.

31) <KIII-(1)-6>의 「사이좋은 친구」(교사용)의 번역은 필자의 줄역이며 원본의 인용은 분량상 생략한다.



그림2 <KⅢ-(1)-6> 「사이좋은 친구」(교사용)

이와 같이 일본 어린이와 직접 같이 등장하는 장면에는 반드시 仁榮, 貞子, 英子와 같은 일본식 이름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玉童이가 다로로 옥순이가 오하나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조선 어린이 이름이 아니라 일본인화 된 조선 어린이의 이름이었다. 또 내선융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에서도 『일본 심상소학수신서』의 「친구에게 친절해라」에서 『조선총독부 보통학교수신서』의 「사이좋은 친구」로 바꿨다.

위의 그림 1, 2에서 보듯이 일본 어린이 다로와 오하나, 오유키는 정면으로 나와 있으나 인영, 정자, 영자는 뒷면이거나 옆면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조선 어린이 인영, 정자, 영자는 적극적으로 일본인을 도와주고 함께 놀며 사이좋게 지냄으로서 내선융화의 바람직한 조선어린이의 상징으로 아동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Ⅳ기(1938~1941)는 남자 어린이 이름이 일본식으로 正吉, 俊吉, 秀吉로 나온다. 또한 여자 어린이 이름으로 새롭게 明子(명자)가 첨가되었다. Ⅲ기까지 존재했던 조선식 이름인 옥순이가 수신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조선총독부가 1937년 신생아에 한해서 일본식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Ⅳ기 수신서는 모두 일본식 어린이 이름으로 바뀌었다. 또한 새롭게 남자 이름으로 광국(光國)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일제가 同音異語인 光國(KOKOKU)의 요미가타에서 皇國(KOKOKU)을 연상하는 듯한 이름을 선택해서 조선 어린이에게 충량한 황국신민의 어린이라는 의식을 심어 주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된다.

Ⅴ기(1942~1945)는 전부 일본 어린이 이름 밖에 나오지 않는다. Ⅳ기의 영자와 명자는 ‘에이시’와 ‘메이시’로 음독으로 불려졌고 ‘하나코’와 ‘후미코’로 훈독되어 있다. <KⅤ-(4)-9>의 「학급회의」에 나오는 어린이 이름은 이미 창씨개명이 완료된 까닭에 모두 일본식 어린이 이름으로 바뀌어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성도 마루야마(丸山), 오카와(大川), 우에다(上田), 오타니(大谷), 기무라(木村), 니시다(西田) 등 일본인 성으로 모두 바뀌어 있다. 게다가 일제는 민족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이름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한글보다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쳤다. 이와 같은 예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최근에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중략) 모두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명심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주의합니다. <KV-(4)-9> 「학급회의」

국어(일본어)를 애용하고 항상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선일체이고 결국 일본정신을 양양하는 데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KV-(4)-9> 「학급회의」(교사용)<sup>32)</sup>

이처럼 일제는 조선어린이들에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이므로 항상 일본어를 사용하여 일본정신을 드높여라, 또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내선일체’이고 ‘일본정신’이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것은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권장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신서에서 나와 있는 예이다.

또 1944년 조선총독부 정보과 발행 「朝鮮事情 資料 第2號」에서도 “일본어를 모르면 일본정신의 파악은 불가능하고 일본어를 멀리해서는 일본문화는 없다”라고 할 만큼 국어(일본어)보급과 일상생활에서 국어(일본어) 사용이 황국신민화의 절대 불가결한 것이라고 적극 권장하고 있다.

### 3-4.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의 차별적 묘사

수신서에서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는 아래의 <표2>와 같이 7회 정도 밖에 없다.

<표2>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나오는 과

기수(학년)-과	조선인 이름	일본인 이름	내용	제목
I-(2)-12	수남	다로	다로가 그림책을 빌려줌	약속을 지켜라
II-(2)-13	정희	일본노인	일본노인 이 우산을 바쳐주고 집까지 데려 줌	은혜를 잊지 마라
III-(1)-16	인영	타로	인영이 보따리를 들어줌	사이좋은 친구
III-(1)-16	정자·영자	오하나·오유키	이웃에 살며 서로 왕래하고 책을 보고 놀	사이좋은 친구
IV-(2)-16	정길	다로	다로가 그림책을 빌려줌	약속을 지켜라
IV-(4)-2	김우선	모리다 마사지	두 경찰관이 두만강 국경에서 적에게 총을 맞아 전사 했다.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졌다.	초혼제
IV-(4)-11	기야마 하루키치(창씨개명)	하라 다로	두 사람이 힘을 모아 훌륭한 마을로 만들고 형제처럼 지냈다.	우리고장

이처럼 적게 나온 데는 조선 어린이가 다니는 『보통학교』와 일본 어린이가 다니는 『소학교』가 각각 따로 존재했기 때문이다.<sup>33)</sup> <KIII-(1)-16>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는 일본

32) <KV-(4)-9> 「학급회의」와 교사용은 필자의 줄역이며 원본의 인용은 분량상 생략한다

33) 1935년 말 통계로 内地人(일본인) 小學校에 다니는 조선 어린이는 일본인 42,868명 중에 1,522명으로

인의 선행에 대해서 조선인이 은혜에 보답해야한다는 의무를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일제 강점 초기부터 동조동근과 동화주의 등을 주장하며 한 뿌리임을 강조했으나, 수신서에서는 <표2> 와 같이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나오는 과는 극히 드물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 심상소학수신서』, 『학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 『조선총독부 편찬 보통학교수신서』에 등장하는 어린이의 이름 변화와 인물 묘사를 통해서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그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연관 관계가 각 기수별, 시대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분키치(ブンキチ)는 비가 내리는데 그림책을 돌려주러 갑니다. 약속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JI-(2)-13> 「約束」

順明과 福童은 매우 좋은 동무라 順明이 아름다운 그림책을 가졌는데, 福童이 順明의 집에 가서 그림책을 보고서 매우 좋아하여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이려고 잠깐 빌렸다가 내일 오전에 반드시 갖다 주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비가 몹시 내렸으나 福童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산을 받쳐 쓰고 그림책을 갖다 주니 어머니가 칭찬하셨다. <K學部-(1)-15> 「約束」

壽男(주난)은 요전에 다로(太朗)한테 그림책을 빌렸습니다. 오늘 돌려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돌려주러 왔습니다. <KI-(2)-12> 「약속을 지켜라」

貞男은 요전에 玉童(교쿠도)한테 그림책을 빌렸습니다. 오늘 돌려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돌려주러 왔습니다. <KII-(2)-9> 「약속을 지켜라」

仁榮(인영)은 요전에 成基(성기)한테 그림책을 빌렸습니다. 오늘 돌려주려고 약속했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돌려주러 왔습니다. <KIII-(2)-13> 「약속을 지켜라」

正吉(쇼키치)은 요전에 다로(太朗)한테 그림책을 빌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돌려주려고 약속한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점점 세지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쇼키치는 체념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런 빗속에 나가지 말고 내일 갖다 주면 어때냐? 다로도 친절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쇼키치는 “어머니!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되돌려 주고 와야 하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KIV-(2)-16> 「약속을 지켜라」

일제는 내선일치란 조선인의 나쁜 점을 버리고 일본인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 일본인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도 「약속」에서 「약속을 지켜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여 의무감을 강조시키고 있다.

3.43%이고, 보통학교에 다니는 일본 어린이는 716,730명중에 676명으로 0.1%였다. 大野謙一(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pp.377 ~78.

<표3> 『일본 수신서』, 『학부 수신서』, 『총독부 수신서』의 동일제목 비교

가수	발행연도	책을 빌린 사람	책을 빌려준 사람	제목
일본 수신서 I 기	1904년	분키치		약속
학부 수신서	1909년	복동(福童)	순명(順明)	약속
총독부 수신서 I 기	1913년	수남(壽男)	다로(太朗)	약속을 지켜라
총독부 수신서 II 기	1922년	정남(貞男)	옥동(玉童)	약속을 지켜라
총독부 수신서 III 기	1930년	인영(仁榮)	성기(成基)	약속을 지켜라
총독부 수신서 IV 기	1938년	정길(正吉)	다로(太朗)	약속을 지켜라

<표3>를 보면 복동, 수남, 정남, 인영, 정길은 모두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 어린이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 수신서』는 분키치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산을 받쳐 쓰고 그림 책을 돌려주는 장면으로 밖에 설정 되어있지 않다. 『학부 수신서』는 내용을 덧붙여 빌려준 어린이 이름이 순명으로 나오고, 어머니가 빗속에서도 친구의 약속을 잘 지키는 복동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점이 『일본 수신서』와 다른 점이었다. 한일합방 이후에 출판된 I 기수신서는 무단정치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본어린이가 다로가 수남에게 그림책을 빌려 줌으로서 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표현했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바뀌짐에 선을 베푸는 어린이가 일본 어린이 다로에서 조선 어린이 이름인 옥동으로 바뀌 바뀌졌다. 이는 당시 일본인에 대한 반감을 생각하여 내용은 같으나 인물만 조선 어린이로 바꾸었다. III기도 학생운동의 영향 때문에 성기로 바뀌졌다 IV 기는 황민화 교육의 철저와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인 다로로 바뀌져 등장한다. 정길의 어머니는 다로가 친절하니까 용서해 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일본인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을 가르치고 있다. 또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고 간접적으로 조선인의 단점을 꾸중하듯이 말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부모의 말보다는 학교 선생님의 말이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학교교육의 힘이 컸다.

이처럼 I 기와 IV기처럼 일본인은 선을 베푸는 사람, 조선인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도식으로 설정하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또한 조선 어린이도 일본 어린이와 같이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일본인의 우월성을 심어주고 있다.

#### 4. 창씨개명의 이중성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부의 조선인 관료와 경찰관 등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 民籍에 등록하자 일본인들 사이에 이것을 동화의 상징으로 환영하는 자가 있었다.<sup>34)</sup> 하지만 1911년 조선총독부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모호하고 차별에 근거한 지배질서의

혼란을 염려하여, 조선인의 성명개칭을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일본인과 혼동할 염려가 있는 성명(内地人ニ粉ハシキ姓名)<sup>35)</sup>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했다. 1930년대 후반까지 이름의 차이가 곧 식민지 지배질서를 지탱한 정책으로 유지되었다. 일제는 이와 같은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될 움직임이 일어나자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식 이름을 장려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적인 방침이 아니고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일본식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창씨개명의 전 단계였다. 이처럼 일제는 중일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에 대해 조선인의 내선일체에 의존하고자 창씨개명을 실시하였다.

창씨제도<sup>36)</sup>를 실시하면서 미나미총독은 “창씨는 반도인 각자의 절실한 요망에 의해서 내선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미나미는 조선인이 오래전부터 창씨개명을 원했던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창씨개명을 실시하기 전 1939년 말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민정조사에 의하면 총인구 22,403,898명 중에서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고 있는 조선인은 9,054명으로 0.04 % 밖에 되지 않았다.<sup>37)</sup> 이처럼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인이 원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증거이다. 또한 내선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도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은 호적에 신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선인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일제강점 초기부터 그들은 겉으로는 동조동급, 일시동인이라는 구호 아래 조

34) 한국인이 최초로 일본 씨명을 사용한 것은 1884년 갑신정변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개화당의 수뇌들이 조선 자객의 눈을 피하기 위해 김옥균(岩間周作), 박영효(山崎永春) 등이 최초이다. 통감부 시대에는 일부의 사람이 일본 동화의 뜻으로 權丙吉(吉田權次郎)과 같이 일본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김동호, 정운혁 편역(1994), 『일제하의 창씨개명』, 『창씨개명』 학민사, p.199.

35) 第一條朝鮮人ニシテ姓名ヲ改稱セムトスルトキハ左ノ事項ヲ具シテ民籍謄本ヲ添へ所轄警察署、警察分署ハ警察署ノ事務ヲ取扱フ憲兵分隊ヲ經由シテ京城ニ在リテハ警務總長、各道ニ在リテハ警務部長ニ願出テ許可ヲ受クベシ。  
 一 本籍、住所、姓名、職業年齡。  
 二 改稱セムトスル姓名。  
 三 改稱ノ理由。  
 第二條前條ノ願書ニハ妻又ハ妾ニ在リテハ其ノ承諾書、滿二十世以下ノ者ニ在リテハ戶主ノ承諾書ヲ添附スヘシ。  
 第三條第一條ニ依リテ姓名ヲ改稱ヲ爲ス者ハ手數料トシテ五十錢ヲ納付スヘシ。水野直樹(2002), 『朝鮮植民地支配と名前の差異化』, 『植民地主義と人類學』, 關西學院大學出版會, p.143.

36) 1923년의 중추원 회의에서 창씨개명제도의 원안을 만들었으나 ‘일본식의 씨를 만든다는 점은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1930년 중추원 회의에서 당시 법무국장 사외(澗)가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다. 마침내 1939년 11월 10일 제령19호 ‘조선민사령 개정의 건이 발표되고 1940년 2월 11일 시행되었다. 8월 10일까지 氏를 설정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월 11일 당시의 호주의 성이 그대로 氏가 되었다. 保坂祐二(2002), 『창씨개명을 통한 민족동화정책』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분석』 J&C, p.186.

37) 金永達(1997), 『創氏改名の研究』 未來社 p.73.

선인에 대한 차별정책과 병행하여 일본인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갔다. 이것은 조선인의 법적지위는 의무에 있어서는 일본인으로 취급되고, 권리에 있어서는 일본인이 아닌 식민지인으로서 일종의 특이한 존재로 취급되었다.<sup>38)</sup>

이러한 예는 I 기 수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壽男은 일본식 이름으로 ‘도시오’이고 조선식 이름으로 수남이라고 부른다. 즉 일제는 일본과 한자가 동일한 壽男이가 일본 어린이가 아니고 조선 어린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낼 필요에 따라 ‘주난’이란 요미가타를 붙였다. 이와는 달리 福童과 貞童은 이름만 봐도 바로 조선 어린이임을 알 수 있어서 요미가타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 또 조선 어린이 ‘주난’이 일본 어린이 다로한테 은혜를 받은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주난’이란 가상인물이 일본인으로 동화된 조선 어린이의 상징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계속적으로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철저히 조선인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식 이름을 유지시켜 그들의 기득권 보호와 식민지통치를 쉽게 할 목적으로 철저히 차별된 정책을 계속해 나갔다. 이런 까닭에 수신교과서에도 II 기까지는 비교적 일본식 어린이의 이름이 적게 나와 있다. 일제는 조선과 일본에 동일하게 존재한 한자 이름을 사용하여 일본식 이름에 대한 거부감을 없게 하였다. 어쩔 수 없이 조선어린이 이름 사용된 경우에도 이름은 반드시 음독으로 하여 조선 어린이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등 이중적인 방법을 썼다.

## 5. 마무리

조선총독부는 창씨개명을 실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가문<sup>이</sup> 중시 되었으나 가명<sup>이</sup> 없는 조선에서 새로운 가족제도를 실시하게 하기위해서 ‘씨’를 만들었고, 일반인도 일본식 성명 호칭을 희망하는 자가 많았던 것을 감안해서 1940년 기원 2600년인 紀元節에 일본식 ‘씨’를 창설하여 실시하였다.”<sup>39)</sup>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창씨개명이 조선인에 대한 엄청난 은혜인양 말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학교수신서』에 등장하는 아동의 이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창씨개명 정책은 조선인과의 차별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조선총독부 방침에 따라 1937년부터 신생아에 한하여 일본식 어린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전환되자, 일본식 어린이 이름을 수신서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한자 표기는 모두 일본식이었지만 음독으로 표기함으로써 바로 일본 어린이가 아니고 조

38) 김운태(1986),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p.182.

39) 朝鮮總督官房情報課(1993), 「朝鮮統治と皇民鍊成の進展朝鮮事情資料第二號」,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 高麗書林, p.703.

선어린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보통학교수신서』에서 대표적인 ‘내선일체’의 모범사례로 창씨개명한 조선 청년과 일본 청년을 함께 등장시켜 아이들에게 창씨개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가르쳤다. 또한 일제는 조선의 고유한 이름인 福童이 대신 壽男, 貞男과 같이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존재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조선 어린이에게 동질성을 갖게 하고 일본 어린이와는 원래부터 한 뿌리였다는 것을 교육시켰다.

본고를 통해서 일제가 조선 어린이 이름을 일본 어린이 이름으로 개명시키는데 『보통학교수신서』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선 어린이 이름을 ①조선 어린이 이름(복동)→②조선과 일본의 공통이름(수남)→③일본식 어린이 이름(영자)→④일본 어린이 이름(하나코)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데 학교교육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제의 창씨개명정책은 한일합방 이후 계속해서 일본인의 기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이름까지도 철저히 통제했고, 겉으로는 동화와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면서 창씨개명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조선인을 철저히 차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결국 일제는 어린이 이름 하나에도 치밀한 계획 아래 점진적으로 조선의 어린이를 일본인화 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學部編纂(1910), 『普通學校修身書』 卷一~四
- 朝鮮總督府編纂(1913), I 期 『普通學校修身書』 卷一~四
- \_\_\_\_\_(1922), II 期 『普通學校修身書』 卷一~六
- \_\_\_\_\_(1928), III 期 『普通學校修身書』 卷一~六
- \_\_\_\_\_(1938), IV 期 『初等修身書』 卷一~六
- \_\_\_\_\_(1942), V 期 『ヨイコドモ上下』 『初等修身』 卷一~六.
- 김운태(1986),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p.182.
- 김중종(2000), 『옛말로 풀어 읽는 우리이름, 우리문화』 p.58.
- 남영신(1989), 『우리말분류사전(이름편)』, p.433.
- 양태호· 정운혁 편역(1994), 『창씨개명의 사상적 배경』 『창씨개명』 학민사, p.144.
- 大野謙一(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pp.377~ 378.
- 大高利夫(1990), 『日本姓名よみふり辭典 名の部』 紀伊國屋書店, p.892.
- 若槻泰雄(1989), 『韓國・朝鮮と日本人』 原書房 p.39.
- 金永達(1997), 『創氏改名の研究』 未來社, p.73.
- 保坂祐二(2002), 『日本帝國主義의 民族同化政策分析』 J&C, p.182.

- ・松原正毅(1995), 『世界民族問題事典』 平凡社, p.851.
- ・水野直樹(2002), 「朝鮮植民地支配と名前の差異化」 『植民主義と人類學』 關西學院大學出版會, p.143.
- ・宮田節子(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교육』, 미래사, pp.50 ~93.
- ・朝鮮總督官房情報課(1993), 「朝鮮統治と皇民鍊成の進展朝鮮事情資料第二號」 『日帝下支配政策資料集』 高麗書林, p.703.
- ・若槻泰雄(1989), 「韓國・朝鮮と日本人」 原書房 p.39.

K C I

## 要 旨

本稿は日帝強占期の普通學校修身書にみられる朝鮮兒童の名前の變化に着目し、1940年から施行された朝鮮總督府の創氏改名との關連を、その前後に分け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日帝は統監府時代と強制合併第一期までは、朝鮮固有の兒童名が多數見られるが、第三期に近づくにつれ、朝鮮固有の兒童名をなくし、日本の兒童名を登場させ、「一視同仁」という名目の下に、同化政策を実施したのであるが、作名におけるある限界が見られる。つまり、朝鮮の兒童名を朝鮮人と日本人との「中間者」的な名稱として使っていることである。それは日本人の優越性を見せつけようとした結果生まれたものであり、植民統治の二重性をうきぼりにしている。

植民地政策の差別は、朝鮮の兒童名一つにおいても、計画的で意圖的に行われていたのである。また日帝は學校教育を通じて①朝鮮の兒童名(福童)→②朝鮮と日本の兩方に存在している名(壽男)→③日本式の兒童名(英子)→④日本の兒童名(はな子)のように朝鮮固有の兒童名を日本の兒童名で漸進的に改名させたことが分かった。

つまり、日帝の創氏改名は朝鮮の姓名を日本式氏名に改めることばかりでなく、朝鮮の家族制度を根本からゆさぶり、破壊しようとする日帝の意圖がかくされ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キーワード：創氏改名, 普通學校修身書, 植民地教育, 二重星, 兒童名, 同化政策, 差別性

투 고 : 2006. 2. 28  
1차 심사 : 2006. 3. 11  
2차 심사 : 2006. 4. 1

住 所 :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번지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62-530-3211/016-600-0362  
e-mail : sjkim77@chonnam.ac.kr

住 所 : (506-3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아파트 604동 805호  
電 話 : 062-454-1980/019-609-1980  
e-mail : jhpark1288@hanmail.net